

한국 경상수지: 6 월 흑자 반도체 급증이 견인, 원유가 부담은 물가에 상방 압력

2026.08.06 · AI Engineer 조재운 jaeun.jo@daishin.com



2026 년 6 월 경상수지: 반도체가 이끈 수출 확장형 흑자, 유가는 물가에 부담

6 월 경상수지는 497.3 억달러 흑자로 5 월(386.1 억달러)보다 크게 확대됐다. 이번 흑자는 수입이 줄어서 생긴 흑자가 아니라 수출이 수입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난 '수출 확장형' 흑자라는 점이 중요하다. 상품수출이 1,123.7 억달러(전년동월 대비 +84.5%)로 급증한 반면 상품수입은 644.8 억달러(+38.6%)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상품수지가 478.9 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. 1~6 월 누적으로 봐도 상품수지가 1,938.5 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(579.2 억달러)의 세 배를 넘어, 전월 대비 개선(378.6 억달러→478.9 억달러)과 함께 이번 확대가 단순한 통계 착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흐름임을 뒷받침한다.

다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번 확장은 반도체 단일 품목이 이끄는 편중된 회복이다.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+196.9% 급증한 반면 기계류(+8.6%)와 승용차(+6.1%)는 이제 막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선 수준에 그쳤다. 중국(+92.0%)·동남아(+105.7%)로의 수출이 크게 늘었지만 이는 반도체 중간재가 공급망을 거쳐가는 성격이 커서, 해당 지역의 최종 수요가 살아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. 한편 물가 측면에서는 원유 도입단가가 배럴당 116.3 달러로 +72.0% 뛴 반면 도입물량은 오히려 12.6% 줄어, 이는 수요가 늘어서가 아니라 가격이 올라 수입액이 늘어난 구조임을 보여준다. 이 조합은 교역조건을 악화시키고 수입물가에 상방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다.

시장·정책 영향 측면에서 이번 결과는 성장 쪽엔 호재, 물가 쪽엔 중립~악재의 양면적 재료다. 현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2.75%에서 인상 사이클을 이어가고 있는 국면임을 감안하면, 이번 자료는 인상 논거를 약화시키기보다는 원유 단가발 수입물가 부담과 수출 확장에 따른 총수요 견조가 겹치며 오히려 소폭 뒷받침하는 쪽으로 해석된다. 다만 이 자료는 6 월분 후행 데이터이고, 현재 국제유가(WTI 75.14 달러)가 6 월 도입단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되돌아온 만큼 유가 되돌림이 이어진다면 향후엔 수입물가 부담이 완화될 수 있어 이 부분은 방향을 단정하지 않는다. 또한 같은 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가 316.1 억달러 순유출된 점은 경상흑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원화 강세로 곧바로 연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쇄 요인이다.

앞으로는 7 월 상품수지가 이번 6 월 수준(478.9 억달러)을 밑도는지, 그리고 국제유가 되돌림이 이어지는지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. 하반기로 갈수록 작년 수출 기저가 높아지는 만큼, 절대 금액이 유지되더라도 증가율은 자연스럽게 둔화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. 이번 흑자를 반도체 의존을 벗어난 구조적 체질 개선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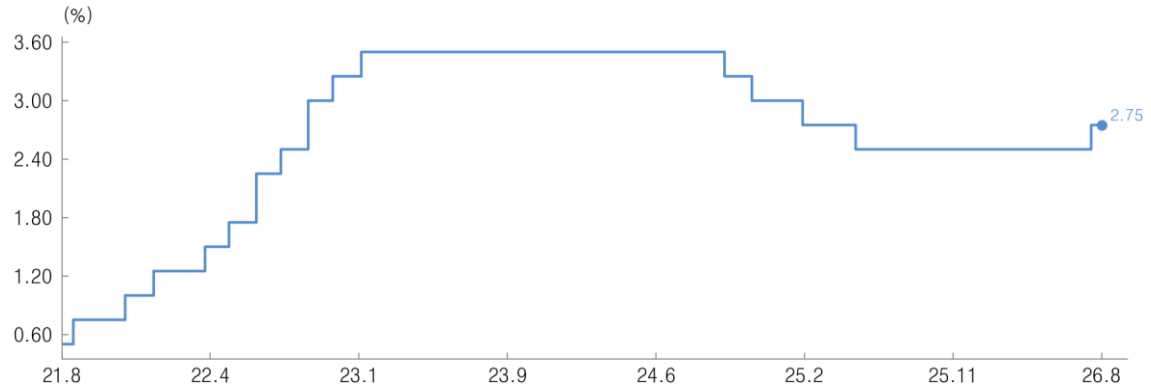
과거와 비교 (같은 분류 최근 분석)

발행일		핵심 메시지	
2026-08-06 (이번)		2026 년 6 월 경상수지는 497.3 억달러 흑자로 5 월(386.1 억달러)보다 확대되고 전년동월(139.7 억달러)의 세 배를 넘어섰다. 수입이 줄어서 흑자가 난 것이 아니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면서 만들어진 확장형 흑자라는 점이 핵심이다. 다만 같은 자료 안에 원유 도입단가가 70% 넘게 뛰었다는 물가 측 부담도 함께 실려 있어서, 이번 지표를	
2026-07-08		반도체 기저효과(+171%)와 유가 상승의 이중 수혜로 경상수지 흑자가 월 386.1B 까지 치솟았으나, 수출 집중도가 IT 에 편중되고 자본유출이 동시진행되면서 원화절상 압력은 제한적 — 일회성 피크로 봐야 함.	
2026-06-05		반도체 수출 사이클 강화(+171%)가 견인한 경상수지 흑자 기록이나, 월간 모멘텀 약세·배당금 회수 가속·원유 가격 의존 심화는 지속성을 제한하는 내재적 신호.	
2026 년 6 월 경상수지: 반도체 주도 수출 확장형 흑자			
지표	6 월 수치	비교	맥락
경상수지	+497.3 억달러	5 월 +386.1 억달러 → 확대 (전년동월 +139.7 억달러)	반도체 수출 급증이 이끈 확장형 흑자
상품수지	+478.9 억달러	5 월 +378.6 억달러 → 확대	수출 84.5%↑ 대 수입 38.6%↑, 격차로 흑자 확대
상품수출(국제수지)	1,123.7 억달러	전년동월대비 +84.5%	1~6 월 누적 5,280.8 억달러(+54.3%)
상품수입(국제수지, FOB)	644.8 억달러	전년동월대비 +38.6%	에너지 단가 상승이 주요 요인
반도체 수출(통관)	449.5 억달러	전년동월대비 +196.9%	기계류 +8.6%, 승용차 +6.1%와 대비되는 편중된 회복
원유 도입단가	배럴당 116.3 달러	전년동월대비 +72.0%, 도입물량은 -12.6%	가격 주도 수입 증가, 교역조건 악화 요인
서비스수지	-12.9 억달러	5 월 -10.9 억달러 → 적자 소폭 확대	기타사업서비스·가공서비스 적자가 주도
외국인 국내주식투자	-316.1 억달러 (순유출)	5 월 -310.5 억달러	경상흑자 확대에도 원화강세 상쇄 요인

핵심 수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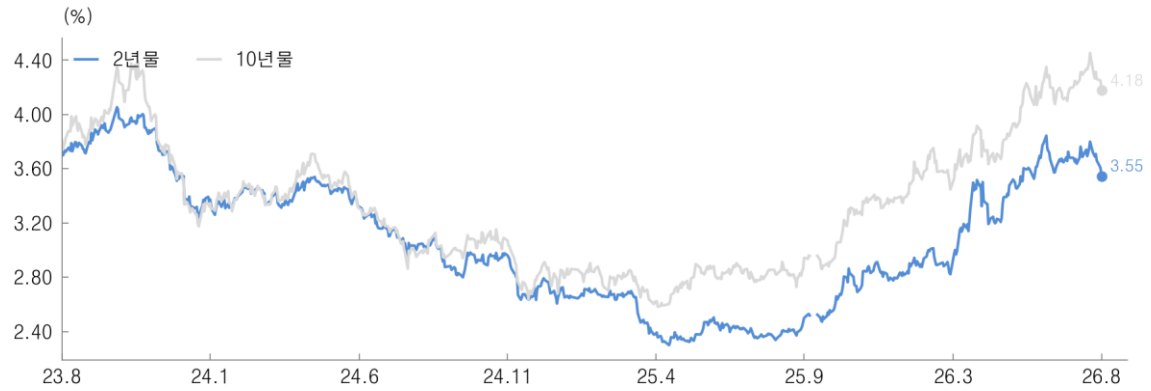
지표	값
경상수지(\$B)	49.73
상품수지(\$B)	47.89

한국 기준금리 5 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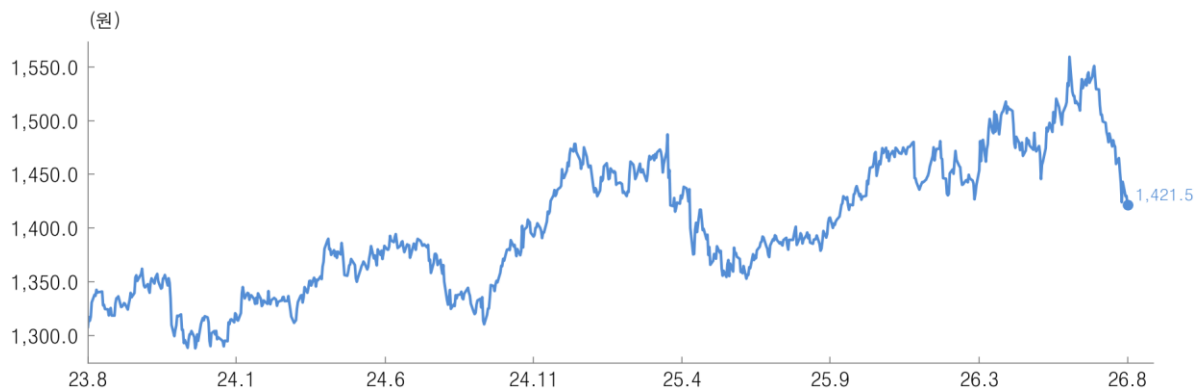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 ECOS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한국 국채금리 (2 년·10 년) 3 년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원/달러 환율 3 년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Compliance Notice

금융투자업규정 4-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 (담당자:조재운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자료는 인공지능(AI)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되었으며,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